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12~13)

일꾼은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

몇 년 전 어느 재벌이 부도 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말을 바꿔 타십시오.”라고 조언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꾼을 바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일꾼을 바꾸더니 기업이 회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으로 인해 기업의, 더 나아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먼저 일꾼을 찾으셨던 겁니다(막3:16~19). 자고로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부터 고르는 법이니까요.

저도 37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저를 도와 함께 일할 일꾼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10:2)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이 맞도록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일꾼들이 대거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일꾼 밀거름이었습니다.

일꾼은 일머리를 아는 자다

그런데 그간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일 잘하는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능수능란(能手能爛)이 뭐니까? 능할 능(能), 손수(手), 능할 능(能), 빛날爛(爛)으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내 손에 오면 빛이 나게 되어야 한다’는 뜻, 곧 일에 익숙하고 솜씨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사람 말입니다. 한 마디로 전문가,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에 능수능란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결과만을 보는데, 과정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많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일에 진척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돈도 절약되는구나...’ 산전수전을 겪으며 직접 몸으로 익혔기에, 다시 말해서 경험했기에 일머리를 알고, 연장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나물을 무치거나 된장찌개를 끓이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도 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맛날 수가 없었지요. 많이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사람은 계량스폰으로 계량을 해서 만들어도 그런 깊은 맛이 안 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산지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사도 바울도 이런 저런 경험을 했기에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능수능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총회장 이초석 목사

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고전9:20~22). 어떤 유의 사람을 만나든 전도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해외집회를 20년 넘게 다니면서 별별 경험을 다했습니다. 집회 당일 비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영상이나 앰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통역관이 통역을 못하고 헤멜 때도 있었고, 전혀 집회광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 당시는 무척 당황했지만, 그것이 다 경험이 되어 이제 우리 선교 일행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도 끌려 다니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주도하며 능숙하게 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을 낙하산으로 높은 자리에 털썩 앉혔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냥 있겠습니까? 무경험인 자를 꼭대기에 앉혀놓으니 기업이 흔들흔들렸지요.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밑바닥부터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진보다 일을 더 잘해서 기업의 몸집을 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렴요, 귀한 지식 일수록, 대를 이을 자식은 은 굴러

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수능란해지기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놀 때 열심히 일하며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예닐곱 정도 적은 어느 기업의 CEO가 저와 골프를 하다 지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에는 비싸고 좋은 골프채로 바뀌가지고 나왔습니다. 골프채 탓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통사정으로 인해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그분이 저를 이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기에 갑자기 이렇게 잘 치느냐고 물었더니, 매일 연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장이 좋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일에 성과가 있는 겁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핑계 대는 겁니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못한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잠26: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많은 경험으로 능숙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일에 서툽니다. 처음부터 일이 손에 척척 붙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선뜻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하더라도 부끄러워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기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니 해봤나?’라고 정주영 회장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부딪쳐볼 때와 두 번 부딪쳐볼 때 다릅니다. 방법과 해법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도 10년 넘게 수많은 실패와 경험이 축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두 번 해보고 다 해본 양 포기하는 자는 절대 프로페셔널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근성이 있어야 자기 분야에 능수능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산지식이다

사업을 하십니까? 정치를 하십니까? 이런 일꾼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일꾼 하나로 인해 애굽이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일꾼 하나 잘 쓰면 기업이, 교회가,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면 백 년 된 산삼이 사람을 고르듯 당신이 기업을, 국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능수능란한 일꾼이란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라는 최고의 연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령에 충만해질까요? 아닙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하는 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손만 얹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손수건만 가져다 대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프로페셔널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내가 부리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점검하세요. 점검부재 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나니까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웅달샘 ::

시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몇 해 전, 송구영신예배를 마치고 서울의 어느 장로님의 초대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져내려 장로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장롱 위에 깊숙이 넣어놓은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가 갑자기 떨어져 내린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로 얻어맞은 장로님의 반응이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며 엉엉 울며 회개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알지 못하니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었다.

예배 후에 장로님은 어찌된 연유였는지 고백을 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11:6)는 말씀을 들으며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봉사한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물질을 드리고 십일조 생활을 해왔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은 이러합니까! 어찌하여 나의 자녀들은 이러저러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자기 머리를 치더라.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치 볼 것도 없이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었다.

성경은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말씀이다. 바로 시각의 차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요, 또 무엇이 화인가? 한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다. ‘복(福)’은 ‘보일 시’(示)자와 ‘가득할 복’(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복’(畝)은 향아리 형상을 본 떠 만들었다. 결국 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 향아리에 담겨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복이란 것이다. 반면 ‘재앙 화’(禍)는 ‘보일 시’(示)자와 ‘입 뻘뻘해질 궤’(厓)자가 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의 허물과 상대의 허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다. 내 인생 향아리에 담긴 것은 바라볼 줄 모르고 남의 인생 향아리와 비교하며 자꾸 입을 뻘뻘거리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좌우한다.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 감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비전에 사로잡혀 산다.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고야 만다. 하지만 불신앙의 시각, 부정과 원망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매듭짓기에 실패한다. 그런 자에게 기대할 열매도 없다!

복과 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당신의 시각은 어떠한가!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AD 64년 전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저지른 로마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덮어씌웠고, 이에 선동당한 로마 시민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닥치는 대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다. 수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점차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성도들은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박해의 강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로마에서처럼 끔찍하게 죽임 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고, 장사도 할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로 팔려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대도시를 피해 사람들이 살기 힘든 험지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고, 많은 크리스천이 지하무덤인 카타콤베로 숨어들어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까지 설쳐대고 있어 초대교회는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베드로전후서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로마에 남아 활동 중이던 사도 베

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다. 당시는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가두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희들 때문’이라고 덮어씌워서 모욕을 주던 때였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세상은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지만, 주님의 눈에는 엄청난 존재들이야.’라고 말한 것이다(시16:3).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는 여러모로 오해를 받고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담대히 일어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찌 대하든 우리의 신분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정금 전도사

하나님의 법궤 (Ark of God)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제사장을 앞세워 여호와와 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 제사장의 발이 닿는 곳의 물이 갈리고 끊졌습니다. 12지파의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 강이 육로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와 궤, 하나님이 강에 들어가니 강이 육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갈 때, 험한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요단강 물에 휩싸여 죽게 되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궤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비넡의 집에 있던 궤를 다윗성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뛰므로 궤가 흔들리니 웃사라는 사람이 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

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법대로 해야 함을 뜻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도,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툴을 어기면 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힐문할 필요도 없고, 단서나 톨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웃사의 행동이 옳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치될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중심전집



:: 생명의 말씀 ::

숨어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사45:15).

70년 포로생활의 부재감 뒤에 비상한 섭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때엔 마치 숨어계셔서 숨바꼭질하시는 것처럼 깊은 부재(不在)로 느껴지기도 한다.

누구나 어려서 숨바꼭질 놀이를 해본 경험에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려서 동네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포근한 벚꽃 단 안에서 숨어 잠이 들어버린 기억이 있다. 숨바꼭질 놀이의 목적은 술래가 영영 못 찾게 하려는데 있지 않다. 술래에게 잡히면 발견되는 기쁨도 있어야 하고, 또 는 오랜 시간 찾지 못해 애타게 돌아다니는 술래가 불쌍해 자발적으로 다가가 기도 하는 것이 술래잡기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은, 죄로 막힌 답이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다. 죄의 답이라면 회개로 허물어야 하고, 의도적인 훈련이라면 찾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도록 희망고문만 하시지 않고, 간절히 그의 열구를 구할 때 찾아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인격의 아버지이시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외친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심지어 이방인에겐 관심도 없다는 듯한 무관심과 모욕감까지 주신다(마15:21~28). 이 정도의 거절이라면 떠나갈 만도 하다. 그런데 여인은 끝까지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은 큰 믿음이 라 칭찬하시며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신다. 침묵이 침묵이 아니었고, 거절이 거절이 아니었다. 이런 부재감을 통해 예배자로 서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숨어계시고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은 인간 편에서의 느낌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깊은 부재감은, 강력한 임재의 전조증상이다. 코로나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시121:4).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명품 믿음, 성령의 열매

가을 냄새가 뭉클나는 요즘 맛있는 과일들이 저마다의 향을 발하며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향과 맛이 좋지만 썩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꽃향기도 은은하고 매혹적이지만 썩으면 그 또한 냄새가 고약하고 독소까지 뿜어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내 체취는 내가 못 맡고 남이 맡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에 찌든 냄새와 썩은 오물 냄새가 나는지 옆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실래요? 향기인지 썩은 냄새인지.

우리 삶에는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한 부부도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이 절실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모여 드리던 평범한 예배와 찬송, 당연했던 통성기도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더욱 하나님을 찾읍시다.

유명한 가게가 오픈하거나 명품 한정세일을 하게 되면 밤을 새우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를 봅니다. 유명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 한나절이란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먹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

의 조그만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기다리는데,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며 기다리는지요?

날마다 주님과 의 만남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과 기다림으로 세상의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믿음이 되십니까?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명품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프롬인터넷 ::

전도를 망설일 수 없는 이유!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을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가도 돼. 여기 전도지가 있다, 조심해 다녀와.”,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이 11살 소년은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걸었습니다. 빗속을 두 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구석에 멈춰 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아 보았지만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의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 다. 하는 수 없어 마침내 소년은 그냥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열려주지 않았습니 다. 그러자 소년은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어요.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 다.

“소년아,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이 전도지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목사님은 설교단에 계셨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의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 다.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빛이 났습니 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 했습니 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 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서까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 다. 벨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 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문 앞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 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난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죽은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어요!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천사가 추위와 비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 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러 왔습니 다. 그리고 그는 제 때에 와서 영원한 불터미에서 나를 구했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의 첫 번째 벤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감잠을 수없이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한다.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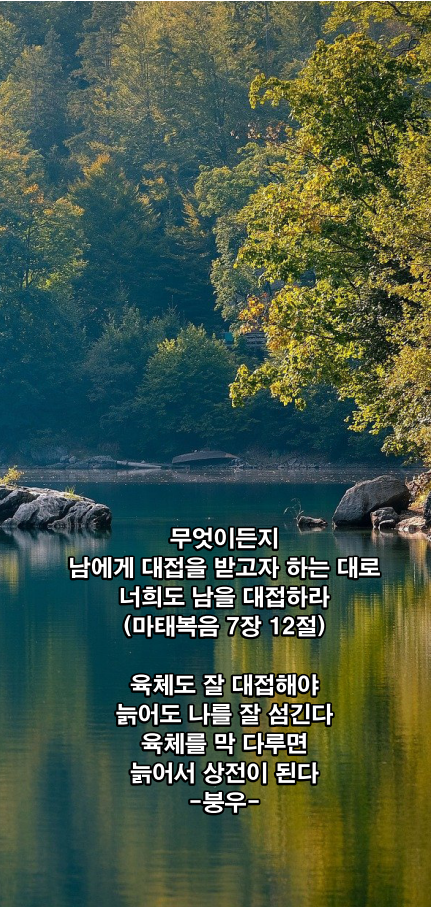
방치하다간

얼마 전 집에서 잘 사용하던 싱크대 수전에 문제가 생겼다. 어느 순간부터 물이 졸졸 약하게 나오더니 그날 저녁이 돼서는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손잡이를 당겨보고 이리저리 만져보아도 도무지 물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을 확인해봤더니 화장실 물은 잘 나왔고, 결국 싱크대 수전만의 문제임이 분명했다.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유튜브로 몇 가지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다. 여러 가지 점검 포인트 중 하나였던 수전 내에 있는 여과기를 청소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전 여과기를 열어보았고,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여과기가 딱 막혀서 물조차 못나오게 막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과기의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재장착하니 막혔던 수전이 뽕 뚫렸고, 이전보다 훨씬 강한 세찬 물줄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사실 조금씩 물줄기가 약해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뭔가 이상한데?’ 싶었는데 조치 없이 계속 방치했던 게 문제였다. 결국 수전이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았고 한참을 고생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악을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안 된다. 게으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부정의 생각과 습관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언젠가 그것들이 내 인생의 구원과 축복의 물줄기를 수전 내 막힌 여과기처럼 딱 막아 버리기 전에 빨리 깨닫고 손을 보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사라지고 뽕 뚫린 시원한 새 물줄기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가득할 것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육체도 잘 대접해야
늪어도 나를 잘 섬긴다
육체를 막 다루면
늪어서 상전이 된다
-봉우-